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소설A)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소설A)
- 회의일시 : 2025년 2월 7일(금), 11:00~11:47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효서, 김건형, 오현종 심의위원

기존의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올해부터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창작 지원금이 대폭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위원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발표 기회 제공 및 창작 공간 지원, 창작과 관련된 후속 지원을 포함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문학 창작자의 창작 역량을 증진하고 한국 문학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심의위원들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엄정하고 꼼꼼하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소설 분야의 심의대상은 총 208편으로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소설 A분과에서는 104편을 담당하였습니다. 신청서류를 사전에 각자 읽고 채점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7명의 훌륭한 작가를 예비 후보로 선출하였고 이 결과에 대하여 흡족하게 동의할 수 있음을 토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창작 역량(50%)'이었습니다. 해당 신청자가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문학적 역량을 입증했는지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항목은 신청자의 창작, 출판, 수상 등 활동 이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본 항목은 '활동 계획의 적절성(30%)'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으면 출판을 하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구체적 출판 계획과 그 이후 이와 관련된 강연이나 문화 예술 행사, 후속 창작 작업 등이 있는지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물론 작가로서 창작 역량을 가장 우선 검토하였지만, 우수한 작가들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점수 차이가 났던 부분은 해당 항목이었다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지원 사업 이후 후속 창작 작업이나 이번 출간과 연계하여 독자와의 물리적, 정서적 만남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준 신청서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심의 항목, 작가로서 발전이나 새로운 성취를 평가하는 '기대효과(20%)'의 항목과도 연동되는 것입니다. 신청자 개인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는 그 이상의 목표나 가치관을 보여준 신청서에 더 높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의 발간만으로도 문학적 성취이며 예술적으로 기여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번 심의가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문학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구상을 가진 신청서에 지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발간지원'에서 '펠로우십'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화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작가들을 새삼 일별하며 그간의 성취를 돌아켜보고, 한국 문학의 미래에 대한 기획까지 엿볼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작가에게 이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소설B)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소설B)
- 회의일시 : 2025년 2월 7일(금), 14:06~14:45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다경, 김태용, 심진경 심의위원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은 2024년도까지 운영되었던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이 개편된 것으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두 사업 모두 우수 작가의 문학 생태계를 지원하는 취지의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문학작가펠로우십은 우수작가의 선정기준을 주요 문학상 수상, 공공분야 선정 이력, 단행본 출간 이력으로 하고, 여기에 향후 활동 계획과 기대효과를 더해 지금까지의 활동 경력과 작가 역량(작가적 성실성, 문학적 성취에 대한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문학을 대표할 만한 작가 선정에 주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분과에서는 심의대상을 A와 B 두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로 100여건 정도 씩을 심사하기로 하고 분과마다 세 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1차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심사는 두 번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심의위원들 각자가 온라인으로 먼저 심사한 뒤 그다음에 대면 심사를 실시했다. 심의 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가의 문학적 역량, 강연·발간·행사 등의 후속 활동 계획, 작가로서의 발전에 대한 기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작가들이 제출한 기획서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이 중에서 작가로서의 역량은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기준으로, 작가가 지금까지 작가로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그러한 활동에 대한 성취가 얼마나 검증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한국작가들의 문학적 역량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업은 문학계에서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해 앞으로 세계문학계에서 대중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위원들 또한 이러한 사업의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사전전수검토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는 합의를 이뤘다. 여기에는 심사위원 각자의 특정한 문학 취향이나 스타일이 고려될 여지가 없었다.

소설 B 분과에서는 총 7명의 작가를 선정해 2차 심의로 올렸다. 이 작가들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작가로서의 역량과 검증된 문학적 성취 때문이다. 1차로 선정된 작가들 모두 누구나 인정할 만한 문학적 성취를 이뤘으며 이미 외국에서 그 역량을 평가받기도 해 앞으로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더 많은 작가를 2차 심의에 올리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쉽다. 왜냐하면 심의 대상이 된 많은 작가분들이 이미 자기만의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아직 2, 3년차 신인임에도 놀라운 역량을 뽐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번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룬 문학적 성취와 작가로서의 명성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본다. 심의위원들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중심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둔다.

2차 심의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합의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지원사업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작가와 작품을 발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한국문학에 큰 보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